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정홍보처〉

“종교·언론인 더 무거운 책임져야”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5년의 제1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감시다' 제하의 취임사를 통해 ▲선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발

전 ▲튼튼한 인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인류공영 이바지를 5대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이며,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이 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를 위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종교인과 시민 운동가, 언론인도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경상공고는 사각과 정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턴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9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야문 www.yosiamun.com FAX (02)737-0696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주사 주지후보 단일화 범어사는 4명 등록 마감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의 차기 주지후보가 노현 스님(문경 각하사 태백선원장)으로 단일화 됐다. 3월 10일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는 법주사는 2월 22일 각 문중대표 5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노현 스님을 합의추대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에는 43명의 스님이 참가했다.

한편 제14교구본사 부산 범어사의 주지 후보에는 상운·정여·덕륜·광만 스님이 입후보했다. 2월 28일 주지후보 등록을 마감한 범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6일 오후 1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여수령·허성미 기자

포살 불참땀 구속계 수지 불가

조계종 포살·결계 종법 입법 예고...3월 11일까지 의견 접수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정례화'를 위한 종법이 마련된다.

조계종이 2월 28일 입법예고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제정안)'에 따르면, 포살 및 결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속계를 수지할 수 없고 승가고시와 법계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공동체의 공화의 전통

을 계승하고...포살을 실천·수행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대중은 각 교구 단위로 연 2회 결계 전 결계신고를 해야 하며, 한 달에 1회 이상 포살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결계대상은 조계종단에 소속된 모든 스님이며 병환, 해외 유학, 출장 등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 결계는 교구를 기본단위로 구성된다. 단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는 해당 학교에서, 군

승은 군종교구가 정하는 곳에서 별도의 결계와 포살을 실시하게 된다.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합묵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한다.

포살은 교구본사에서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시행일자과 포살 장소는 교구본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포살법회는 포살계사를 위촉한 후 포살 작법에 의해 행하며, 포살계본은 <법망경> 중 보살계 포살 낭송본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교구본사는 결계 신도자를 등재한 결계록을 작성해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

며, 총무원은 이를 연 1회 결계록으로 발간한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취)는 2월 25~26일 제5, 6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제정안 초안을 검토했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3월 4~5일 열리는 7차, 8차 종헌종법제개정특위 회의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순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 인건으로 상정된다.

한편, 조계종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3월 11일까지 받고 있다. (02)2011-1710 여수령 기자

신계사 불사추진위 4년만에 해산

“北에 운영권 요구 않을 것”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복원을 위해 구성됐던 신계사불사추진위원회(총재 지관)가 2월 25일 해산됐다. 추진위는 지난 2004년 신계사 복원불사를 위해 구성돼 지난해 10월 낙성법회를 봉행하기까지 4년이 간 활동해 왔다.

추진위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복원불사에 앞장서 온 추진위원장 종상 스님과 부위원장 도공·영조·명진·명성 스님을 비롯해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복원불사 사업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운영 경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를 공식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결산보고에서는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한 총 수입 57억여 원과 지출 54억여 원에 대한 감사보고를 받고, 차입금 1억 5000 만원은 조계종 총무부에 상환하고 잔금 1억4000만원은 목적기금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지관 스님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신계사 복

원불사는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개 동을 복원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며 "이는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뜻이 모여 이뤄진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난해 12월 신계사 도공 제정 스님이 철수를 한 상태인데, 신계사 운영이 남북공동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면서 "신계사 복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북측에 공동 운영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원장 종상 스님은 "향후 신계사에 남북 스님이 상주하며 교류가 이뤄지는 방안이 모색되지 못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수현)는 지난 2월 20일 제7차 회의에서 신계사 복원불사 등 대북사업과 관련한 종합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신계사 복원불사 및 대북사업 관련 종합 자료집 발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령 기자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 공개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변경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정취)가 오는 3월 중 문화재관람료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문화재관람료'라는 명칭을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변경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장재 스님은 관람료 내역 공개에 대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시민들이 사찰관람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관람료가 문화재의 관리 및 보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를 결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사찰위원회 소속 67개 사찰이 지난해 징수한 관람료는 330여억 원 수준이다. 징수한 관람료는 문화재 관리 및 홍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관람료 징수를 권유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문화재사찰의 관람료는 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 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단위사찰에서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관람료를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령 기자

동방불교대 졸업식 개최

태고종 총림 동방불교대학(학장 영우)은 2월 22일 전승관 대강당에서 제25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학장 영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학과 42명, 법학학과 11명, 승학학과 8명 등 총 61명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영우 스님은 식사를 통해 "종단발전과

종도화합의 초석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차사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는 사회로 회향해 중생제도에 앞장서는 모범이 되는 중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숙)도 학위수여 전례식을 대강당 사후후전에서 봉행했다.

혜철 총정지사장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찰 및 사암등록을 환영합니다

※ 행사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받지 않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교수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용법대 교육원

- ※본 종단 입종후 중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 ※본 종단은 강원 및 울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 ※범용법대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 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金丹 비법 공개

“현문선생 직접지도”

“깨달음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에서 얻을 수 있다!”

“육체에는 육체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무시한 채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며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불혈주야 애쓰시는 불자들에게와 신도님들의 건강을 생명장수의 비법으로 지켜온 금선학회에서 2008 戊子年 百日 藥氣班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1. 제8기 백일 속기반 모집안내

모집 시기	2008년 3월 한달간
수련 일정	2008년 3월 10일 ~ 6월 18일까지 월수금, 화목토 (15:30~17:30, 19:30~21:30)
수련 장소	세계금선학회 본원 (사당역 11번출구 150M, 은혜빌딩 6층)
수련 내용	1. 금선 공법 : 금선 오행 기공, 금선 기지료법, 금선 관법, 명상, 묘유주전, 소주전, 대주전 2. 금선 양생법 : 영보필법, 수도전지, 대성첩경 3. 수진도 내경도 1, 제 8기 백일 속기반 모집안내

2. 신입회원 수시접수(사범반 특별운영)

3. 수련요강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연정화기 과정(소주 천과정)을 수행하므로 건강을 위한 거의 참 맛을 체험하시고 생활 속의 道, 생활 속의 健康을 찾아 평생 건강을 이루시며 이번 교육으로 기초에서부터 올바르게 수련하여 "나의 수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다. (我命由我, 不由天)"라는 경전의 구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금선학회가 궁금하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금선학회.net” 만 치세요~



세계金仙학회

교육문의: 02)512-7057, 583-7057